

불볕더위에 멈춘 광주 전통시장...상인들 ‘시름’

SOCIETY

2025년 7월 9일 수요일

13일째 폭염...진열된 채소·생선 신선도 유지 안간힘

가격 상승에 매출도 줄어 ‘이중고’...사실상 폐장 상태

“34년째 장사하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입니다. 불경기에 손님도 없어 답답하긴 합니다.”

13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오후 1시 광주 서구 양동시장.

상인들은 선풍기 1대에 의지해 땀을 식히고 있었고 일부는 가게 벽에 등을 기대 폭잠을 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습도를 머금은 불볕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상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 올라 있었고 적막감만 가득했다.

이곳에서 34년째 채소가게를 운영 중인 김삼영씨(65)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는데 여름은 처음이다”며 “장사를 하는 시간보다 말라가는 채소에 물을 뿌리며 손님을 기다리는 날이 더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불볕더위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걱정이다.

김씨는 “경기도산 열무는 여름철에 맞았다고 수요가 많은데 울여름엔 더위로



8일 오후 1시 광주 서구 양동시장 좌판대 모습.

작황이 망가졌다”면서 “작년엔 1만원 남짓이었으나 지금은 2000원이나 더 올랐다”고 푸념했다.

이어 “여름은 우리 같은 시장 상인들에게 보릿고개나 마찬가지다. 너무 더우면

손님들도 시장을 찾지 않는다. 예년에 비해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한탄했다.

열무뿐 아니라 배추(15%), 적상추(10%), 양파(7%) 등 대체로 여름철 식탁에서 국거리와 김치 재료 등으로 활용되는 품목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광주 광산구 송정5일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평소보다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고, 문을 닫은 점포가 상당수였다.

15년째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임승수씨(73)는 “요즘 여름은 거의 아열대 수준이다. 생선이 금방 상해 장사하기가 어렵다”며 “날씨가 더워 수시로 얼음을 갈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무더위에 너무 쉽게 녹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평일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게 문을 열어 신선도 높은 생선만 납품받고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면서 “최근에는 납품 물량을 많이 줄였고, 퇴근 시간도 2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그나마 오전에만 손님이 있고, 한낮에는 사실상 폐장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광주에서 가장 활기찼던 시장 중 한 곳인데 지금은 찾아오는 손님을 셀 수 있을 정도다”면서 “여름철엔 장사를 잠시 접을까 고민도 하지만, 가끔 찾아오는 단골손님들 생각에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다”고 푸념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26 달빛 08:55
☀️ 예보 19:50 달빛 03:21



광주	☀️	25~36
목포	☀️	25~33
여수	☀️	24~32
순천	☀️	24~32
구례	☀️	23~35
광주	☀️	24~33
함남	☀️	24~32
함도	☀️	23~30
고흥	☀️	24~33
진도	☀️	23~32

목포	밀물(고)	01:14 / 12:51
	썰물(저)	06:52 / 18:25
여수	밀물(고)	07:49 / 20:49
	썰물(저)	02:21 / 13:51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사고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8건 발생...대책 시급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다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주소방본부,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4분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등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으며, 타살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남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인 아내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관, 자신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제석산 구름다리는 1999년 도로 개설로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산

등성이가 끊기자 등산로를 잇는 차원에서 설치됐다.

하지만 지상으로부터 37m 높이에 설치돼 추락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30대 남성이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지난 2월에도 40대 남성이 다리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달 20일에는 40대 남성이 추락했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추락 사고만 총 8건이다. 2020년 1.2m이던 난간 높이를 2m까지 높였지만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사고에 남구는 지난달 24일 관련 사업 실시실제 용역을 마치고 추락 방지 망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랑의 공탕 나눔 나눔공동 하안점 운영점(대표 김장선)은 8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적십자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공탕을 대접하고 있다. 나눔공동 하안점 운영점은 매월 적십자 무료급식소에 공탕 300인분 그 외 취약계층을 위한 공탕 200인분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새내기 교원 중도 퇴직자 ‘연평균 40명’

최근 5년간 226명...사직자 절반은 타 지역 임용고시 합격자

최근 5년 간 전남지역에서 교단을 떠난 초·중·고 저연차(5년 미만) 교원이 2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교육청의 ‘5년 미만 저연차 국공립 초·중·고 교원 중도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모두 226명(초등 110명·중등 116명)이 의원면직 형태로 스스로 교사직을 그만뒀다.

매년 평균 40여명이 중도 퇴직했는데 지난해 중도 퇴직자는 43명(초등 17명·중등 26명)으로 전년도 34명(초등 17명·중등 17명)에 비해 9명이 늘었다.

퇴직자 수는 2020년 45명(초등 27명·

중등 18명), 2021년 43명(초등 19명·중등 24명), 2022년 61명(초등 30명·중등 31명), 2023년 34명(초등 17명·중등 17명), 2024년 43명(초등 17명·중등 26명)이다. 반면 광주의 경우 같은 기간 중도퇴직 저연차 교원 수가 6명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초등의 경우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2023년·2024년에는 0명이다. 중등은 2020년·2021년 0명, 2022년·2023년·2024년은 각 1명이다.

이런 현상은 전남지역 교원의 직무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다. 이 때문에 전남에 근무하면서 다른 시도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2020년 16명, 2021년 20명, 2022년 29명, 2023년 15명, 2024년 23명 등 103명으로 전체 저연차 중도퇴직자의 절반에 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임용시험 합격으로 인한 의원면직의 경우 학생 학습권 침해, 지역 교원 수급 악영향, 임용시험 경쟁자의 기회 박탈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들이 전남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해외 발신번호→010’ 변환기 운영자 구속

해외 발신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 업체를 운영한 20대 남성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역업자를 상대로 ‘대리구매 사기’ 등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해외 조직과 결탁해 발신자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010) 번호로 조작해 주는 중계기 업체를 운영한 20대 A씨 등 2명을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A씨 등은 올해 1~5월 서울 강동구 오파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외국인 명의 e-SIM이 장착된 중고 휴대전화 227대를 설치·관리하며 변자 서비스를 제공한 혐

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노쇼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서 달미가 잡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연동한 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태블릿에서 전화를 걸면 연동된 국내 스마트폰을 경유해 발신 번호를 ‘010’ 번호로 표시했다.

A씨 등은 전화번호당 월 14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총 3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하 기자 goback@

삼부토건 의혹 실체 파헤치는 김건희특검...핵심인물 소환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삼부토건 전 경영본부장 조사

삼부토건 우크라 포럼 참여 경위·지배 구조 등 파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전후 맥락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양호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나란히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회장은 참고인으로, 신 전 본부장은 파악자 신분으로 각각 조사받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

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계기를 제공했다.

삼부토건측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 속에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핵심 인사가 포럼에 참석해 삼부토건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

온다.

특검팀은 양 회장을 상대로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추진한 경위와 삼부토건이 사업에 뛰어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조사를 받는 신 전 본부장은 2019년 10월부터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실소유한 디와이디에서 경영본부장을 맡다 2023년 삼부토건 임원을 겸임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2023년 전후 삼부토건 지분 변동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로 특검에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와이디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개최 1달 전인 2023년 2월 이석산업개발 등의 지분을 넘겨받으며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시장에서 조성

옥 전 삼부토건 회장 측이 이후에도 적은 지분을 보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포럼을 앞두고 갑자기 디와이디로 대주주가 바뀐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도씨를 불러 15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삼부토건 관련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한씨에 대한 조사는 원 전 장관과 삼부토건 관련 의혹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폴란드 포럼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을 모르나면서도 원 전 장관이 몰미에서 포럼 일정을 기획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尹 ‘공천개입’ 수사

압수물 분석 이어 소환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격적인 동시 대립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 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개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의의를 행사했는지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